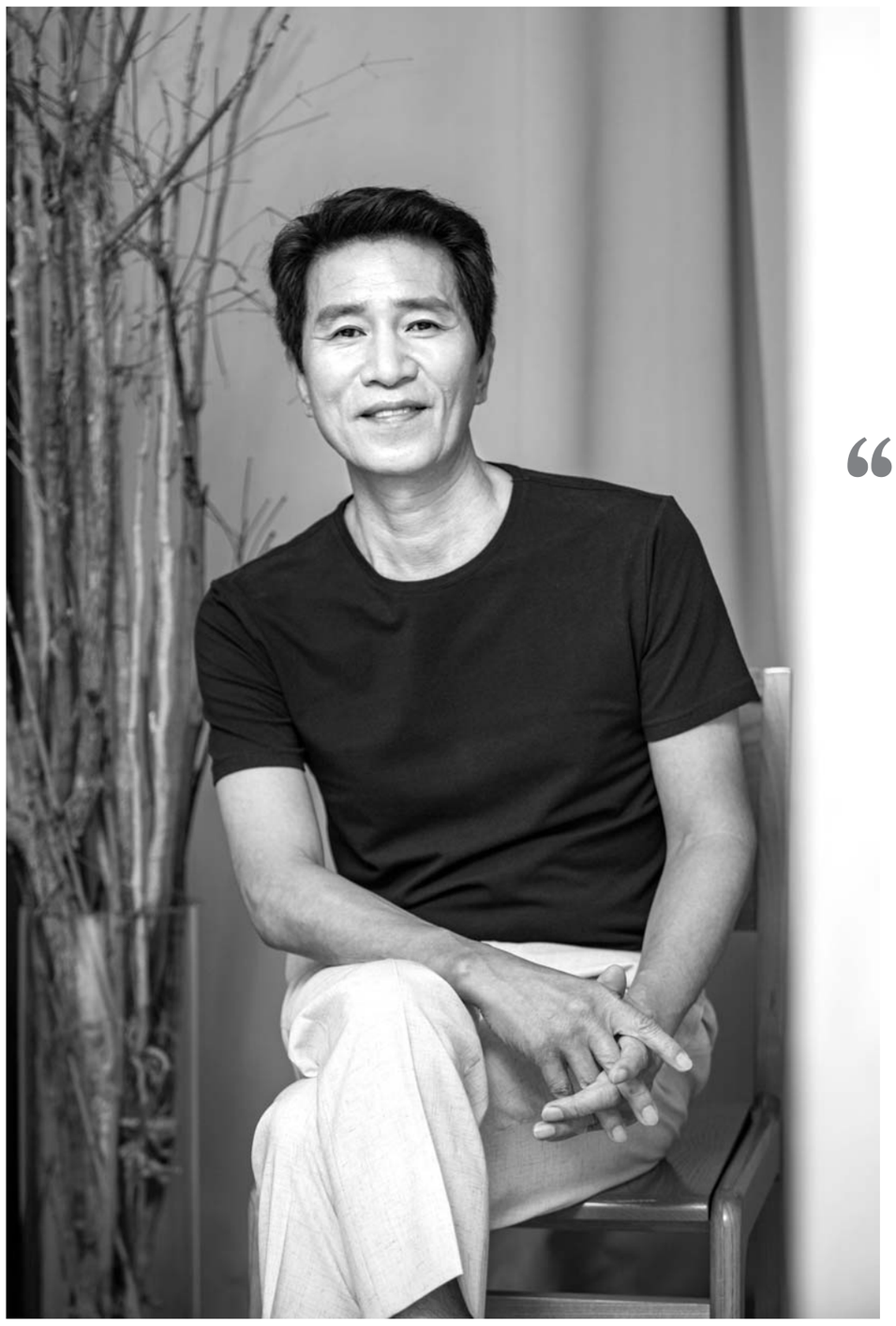
“명품 너무 많죠…명품 조연보다 그냥 배우이고파”



‘강철비2’ 부함장 役 신정근…영화 이끌며 존재감 드러내

지난달 29일 개봉한 영화 ‘강철비2:정상회담’을 끝까지 보고 나면 진정한 주인공으로 느껴지는 인물이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 중 세 정상이 북 핵잠수함으로 납치되며 벌어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사람은 남한 대통령도, 북한 위원장도, 미국 대통령도 아닌 잠수함의 부함장 장기석이다.

장기석은 잠수함 전투의 북한 최고 전략가이지만, 당의 결정에 반대해 잠수함 부함장으로 강등된 인물. 배우 신정근(54)은 생각을 알 수 없는 포커페이스면서 누구보다 동지애가 넘치며 사명감 강한 부함장을 실제로 살아 숨 쉬듯 표현해냈다.

> “포커페이스 속 형제애·동지애 집중
> 잠수함 좁은 공간서 부대끼니
> 배우들과도 저절로 유대감 생겨
> 부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이야
> 딸이 아빠가 주인공이래요

5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어서 오십시오. 부함장 신정근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장기석에 대해 “이런 배역을 정말 하고 싶었었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소속사에서 대본을 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감독님 협박했냐고. (웃음) 배역이 너무 좋아서요. 정우성 씨가 ‘행동하는 게 둔탁하지만, 동생들이랑 잘 어울린다’며 저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도 협박은 없었다고 했고요. (웃음)”

그는 장기석이 잠수함 내의 부하들에게 보여주는 애정과 최고 전략가로서의 모습에 집중했다.

“형제애, 동지애를 보여주는 것에 가장 신경 썼어요. 저는 월요일마다 있는 축구단 활동을 20년 넘게 하면서 동생들을 대하는 게 익숙하거든요. 극 중 부하들이 막냇동생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엔 장기석이 최고의 전략가니까 동해 속 지도를 어느 정도 암기해 놓고 있어야 했어요.”

양우석 감독이 신정근에게 주문한 장기석의 모습은 ‘포커페이스’. 그래서 신정근은 웃음기를 쪽 뺐다.

“이번엔 코미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감독님이 코믹해 보였으면 좋겠다고 한 장면에서도 저는 웃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에 코미디를 할 때도 웃기려고 한 적은 없어요. 상황이 웃길 뿐 개인기로 웃긴 건 아니었죠. 더구나 장기석은 개인기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요.”

군인으로서는 우직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우직함 외에 나머지 행동은 모두 사족이 될 것 같았어요. 애드리브도 일절 없었고요. 장기석이 북한 군이라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좀 멋있었나요? (웃음)”

그는 “부함장이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장기석이 창조된 인물이라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좁은 잠수함 세트에서 다른 배우들과 부대끼며 촬영하다 보니 극 중 장기석과 부하들, 그리고 남한 대통령 한경재처럼 유대감도 쌓였다.

“사병들 연기하는 배우들이 좁은 곳에서 물도 못 마시고 기다리고 있는걸 보면서 물도 주고 했더니 서로 좋은 감정이 쌓인 것 같아요. 한경재 연기한 정우성 씨와도 여러 장면을 함께 거치면서 저절로 유대감이 축적됐죠.”

1987년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해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동한 신정근은 ‘명품조연’ 또는 ‘신 스틸러’로 자주 묘사되곤 한다. 영화 ‘거북이 달린다’(2009), ‘광해: 왕이 된 남자’(2012), ‘터널’(2016)과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2018)과 ‘호텔 델루나’(2019)등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현재는 최동훈 감독의 영화 ‘외계인’을 촬영 중이다.

“저는 ‘명품 조연’ 이런 이야기보다 그냥 배우라는 소리가 듣고 싶어요. 명품이 너무 많잖아요.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배우였으면 좋겠어요. (웃음)”

부함장이 인기를 얻으면서 신정근의 인기도 함께 올라갔다.

“이 작품 때문에 앞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워질 것 같아요. 즐거운 시간은 끝난 거죠. 가족들요? 내색은 안 하는데 와이프가 영화 보고 나서 저한테 악수하자고 하더라고요. 둘째 딸은 ‘엄마, 아빠가 주인공인데 마지막엔 정우성이랑 사귀어!’라고 했고요. (웃음)” /연합뉴스

세계가 반한 ‘덤디덤디’

(여자)아이들 서머송 41개국 아이튠즈 1위

걸그룹 (여자)아이들〈사진〉이 여름을 겨냥해 발표한 ‘덤디덤디’(DUMDi DUMDi)가 세계 아이튠즈 차트 정상을 휩쓸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일 발매된 (여자)아이들의 신곡 ‘덤디덤디’가 인도, 태국, 싱가포르, 핀란드, 헝가리,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41개국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고 5일 밝혔다.

발매 직후 멜론, 지니뮤직,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안착했다.

이 곡의 뮤직비디오는 공개 40시간 만에 유튜브에서 조회수 3천만회를 돌파해 팀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덤디덤디’는 (여자)아이들이 데뷔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서머송으로 리더 소연이 작사·작곡·편곡에 참여했다.

여름과 젊음에서 연상되는 직관적인 가사를 담은 트로피컬 사운드 댄스곡이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4월 발매한 미니앨범 ‘아이 트러스트’(I trust)로 세계 61개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서울드라마어워즈 K드라마 ‘강세’

‘동백꽃…’·‘사랑의 불시착’ 등 9편 본심 진출 미니시리즈 부문 후보작 8편 중 절반 차지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KBS 2TV ‘동백꽃 필 무렵’과 한류를 견인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 다수가 올해 서울드라마어워즈 본심에 진출했다.

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는 6일 올해 본심 진출작 28편과 개인상 후보 26명을 발표했다. 단편, 미니시리즈, 장편, 숏폼(short form) 부문으로 나뉜 본심 진출작 중 예술성, 독창성, 대중성이 가장 뛰어난 한 작품이 대상에 선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년보다 출품작 수가 다소 줄어들어 41개국 212편이 출품됐다.

올해는 한국드라마의 약진이 눈에 띈다. 지난해 본심에 진출한 28개 작품상 후보 중 한국 작품은 2편에 그쳤으나 올해는 9건으로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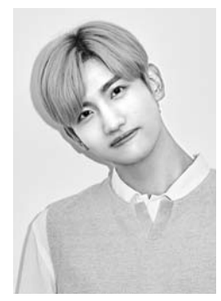
특히 미니시리즈 부문 경쟁에 오른 8편 중 한국 드라마는 4편으로 절반이 한국 작품으로 채워졌다.

‘동백꽃 필 무렵’과 ‘사랑의 불시착’ 외에도 야구를 소재로 한 오피스극 ‘스토브리그’, 청춘 복수극 ‘이태원 클라쓰’가 영국, 독일, 노르웨이 작품과 함께 후보에 올라 경쟁을 펼치게 됐다.

단편 부문에선 SBS TV ‘17세의 조건’과 JTBC ‘루왁 인간’이 진출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시상 부문에 추가된 숏폼에선 진출작 4개 중 무려 세 작품이나 한국드라마(‘눈 떠보니 세 명의 남자친구’ ‘루머’ ‘엑스엑스’)가 진출해 ‘K드라마’의 위력을 보여줬다.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마포구 상암 MBC사옥에서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연합뉴스

집중호우 피해 취약계층 아동에 동방신기 최강창민 3천만원 기부



동방신기 최강창민(본명 심창민·사진)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는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기 위해 3천만원을 기부했다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6일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최강창민이 전달한 후원금은 폭우로 파손, 침수 피해를 겪은 취약계층 어린이 가정의 주거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된다.

최강창민은 올해 어린이날에도 취약계층 어린이 생계비 지원을 위해 이 재단에 5천500만원을 기부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통)
인삼·벌꿀·홍삼·생약초즙·붕어즙·장어즙
닭발즙·칡즙·포도즙 각종고 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

명품크리닝 전문점
서구 치평동 275-22(우리들병원옆)
명품스니커즈·운동화·가방·카페트 염색, 복원, 수선일체
주인 직접 명품세탁, 유모차 전용 세탁소 오픈
(비대면 수거배달, 문자접수)
☎ 010-6559-6700

어주민물장어탕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82번가길4-7
민물장어탕·민물장어구이
포장가능합니다
☎ 061)285-1255, 010-8620-8171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 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사랑방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 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보위
☎ 062)574-8924, 010-9332-8184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비기비빔밥,각종해산물비빔밥,돌솥비빔밥,연어초밥,회세트
☎ 062)229-1008, 010-8572-099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영산포우체국 앞)
십전대봉탕, 쌍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엠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엠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 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보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 리 식 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 福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